



[가격동향] 英, 인플레이션 30년 만에 최고치 기록

- 지난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전년대비 5.5% 상승



지난 1월 영국의 인플레이션이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식료품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계청(ONS)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대비 5.5% 상승하며 지난 1992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가격은 4.3% 상승하며 10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식음료연맹(FDF)은 식음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특히 저소득 가정의 가계 소비지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식음료 업체들은 가격 인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연료, 원료 및 물류비 상승 등 인력난으로 인해 업체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플레이션 압박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식음료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란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 출처 : farminguk.com, 2월 16일 >

[시장동향] 벨라루스, 지난해 유제품 수출액 11.6% 증가

- 55개국 대상 치즈, 버터 및 전지 유제품 수출 증가세



지난해 벨라루스는 55개국에 유제품을 수출하며 수출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농식품부 장관은 '벨라루스 농업 및 낙농업'을 주제로 개최된 국제 포럼을 통해 벨라루스 낙농산업은 내수시장은 물론 수출 수요를 충족 시키기에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지난해 수출액이 2020년 대비 11.6%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품목별로 치즈가 총 수출량의 44.3%를 차지하고 있으며, 버터와 지방을 제거하지 않은 유제품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신흥시장인 쿠웨이트와 잠비아를 포함해 55개국으로 유제품을 수출한 가운데 러시아가 가장 큰 수입국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025년까지 벨라루스의 우유 및 유제품 생산량이 2019년 대비 24.4%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따라 유제품 수출 시장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출처 : eng.belta.by, 2월 17일자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